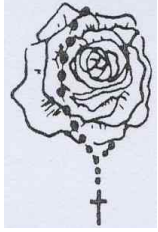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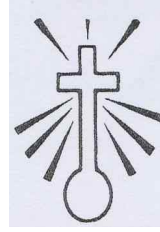


성부·성자·성신  
삼위일체  
아님



# 로 사 리 오

Our Lady of the Roses, Mary Help of Mothers  
(로사리오의 성모, 도움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모  
은  
명  
속  
중  
의



## 베이사이드 성모발원 배경이야기

1970년부터 1995년까지 뉴욕 플러싱 메도우 공원의 바티칸 파빌리온 사이트에서 로사리오 철야기도를 드리는 중에, 복되신 동정 성모마리아와 예수님께서 다섯 아이의 어머니인 베로니카 루에켄에게 발원하셨다.

현시자 베로니카(1923~1995년)를 통하여 주님과 성모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조연과 지혜가 담긴 300개 이상의 메시지를 주셨으며, 철야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뉴욕 베이사이드 성모발원 메시지(1970~1995년)

홈페이지 : [www.jacinta1972.org](http://www.jacinta1972.org)

성자께서 세우신 지상의 유일한 참 종교 로마 가톨릭 교회!

## ◆ 성교회의 변질과 큰 시련을 경고하는 하늘의 메시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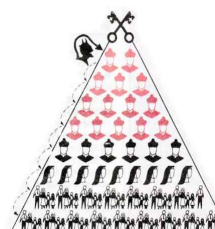
### ◆ 유일한 참종교 : 로마 가톨릭교회



성모님 : "너희는 세례를 통해 성자께서 세운 지상의 유일한 참 종교인 로마 가톨릭 교회에 들어 왔다. 인간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성자의 계명과 성자께서 지시하신 사명을 잊고 있다. 하지만 너희는 이를 잊지 말고 모든 나의 자녀들에게 일깨워 줘야 한다." - 1978.9.7 -

### 성교회의 시련

#### ◆ 파티마 제3의 비밀 : 사탄의 성교회 침입



성모님 : "사탄이 성직자 계급의 가장 높은 자위들에게 들어갈 것이라고 내가 얼마나 경고하고 경고했더니? 세 번째 비밀은 사탄이 성교회 안으로 들어 가리라는 것이다." - 1978.5.13 -

성모님 : 파티마! 나의 메시지 중 중요한 부분이 감추어져 있다. 지금 그 부분이 벌어지고 있다. 주교와 주교가 싸우고, 추기경과 추기경이 싸우게 될 것이다. - 1978.12.7 -

#### ◆ 성교회의 파괴자 : 모든 시련이 이 자로부터 시작



성모님 : "너희 모두는 파괴자의 표시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의 문장은 '반달 모양의 낫'이 될 것이다." - 1972.10.6 -

예수님 : "공산주의의 갈색곰들이 너희의 교황이며, 하늘의 대변인인 교황을 암살로써 해치려하고 있으며 흰곰으로 위장하여 그들의 꼭두각시를 베드로의 자리에 앉히려 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이를 행하도록 한다면 로마는 대혼란과 학살을 겪게 될 것이다. 두려워 말고 세상에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 1991.6.18 -

#### ◆ 성교회의 파멸의 시작 : 사탄이 계획한 종교회의



성모님 :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 보아라. 그들이 종교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계획이다. 오! 불쌍하구나! 사악한 자들에게 천벌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벌일 수가 있느냐?" - 1974.2.1 -

#### ◆ 성교회에 닥치는 시련 :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시험



성모님 : "많은 자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있다. 사탄이 지금 성교회 안에 있다. 어떤 악도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 전능하신 성부께서는 염소 무리에서 양들을 골라내시려 인간들과 성교회에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다. 이 시련 중에 썩어 버린 모든 것들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 1978.5.3 -

#### ◆ 루치펠이 나의 교회 안에까지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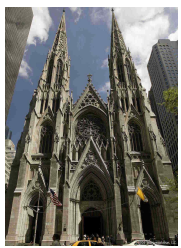
예수님 : "루치펠은 암흑의 왕자이며, 모든 이단과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다. 나는 크나큰 노여움으로 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루치펠이 나의 교회 안에까지 들어갔다. 지상에서 치러지는 이 전쟁이 나의 교회 안에까지 들어간다면, 온 세상은 시험장이 될 것이다. 나의 교회와 세상이 하나처럼 될 때, 마지막 날이 다가왔음을 알아라." - 1978.8.5 -

### ◆ 성교회의 분열 : 요한 바오로 2세가 떠나면



성모님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통해 천국의 영원하신 성부로부터 온 로마의 지침과 요망 사항들을 제쳐 놓고 모든 자들이 제 각기 저마다의 길을 가느라 성자의 교회는 수라장이 되었다." 베로니카 : 성 베드로 성당이 보인다. 그런데 피가 성당을 타고 내려와 광장으로 흐른다. 피는 교회를 반으로 나누고 있다. 성모님 : "그것은 장차 일어날 일을 상징한다. 바오로 2세가 떠나면 교회는 자체 내에서 분열될 것이다." - 1983.3.18 -

### ◆ 성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예수님 : "나의 성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사탄은 분열만이 정복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선장은 그 배가 가라앉더라도 언제나 배 위에 남아 있다. 강한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늘의 도움이 있을 때까지 그 배 위에 남아 있다. 배와 함께 구출될 것이다." "온갖 이교도와 무신론자들의 짓거리가 나의 성교회안에 들어오고 있다. 너희는 믿음을 타협해서는 안된다. 믿음이 기준보다 낮아져서는 절대로 영혼을 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1978.3.18 -

성모님 : "미국에서 믿는 자들이 갈라질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이러한 분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 1975.8.5 -

### ◆ 세상의 종말 : 세상과 성자의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성모님 : "세상과 성자의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너희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음을 알거라!" "나의 자녀들아,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한다. 진리와 전통으로 되돌아오는 변화이어야 한다. 성자께서 너희에게 변치않는 반석을 주셨었다. 지금 자들이 그 기초를 허물려 하는구나. 저들이 성신께서 계시지 않는 교회를 만들려 하고 있다. 인간의 교회를 만들려 하고 있다. 그 교회는 산산이 부서져 내릴 것이다. 전능하신 성부께서 당신의 진노를 인간들에게 보내실 것이다." - 1975.1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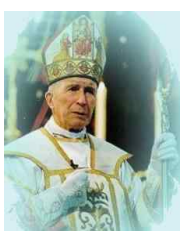
### ◆ 로마 가톨릭교회는 다시 바로 세워질 것이다



성모님 : "나의 자녀들아, 인간의 모습으로 너희 중에 숨어들어 악마의 가르침을 전하는 지옥의 사자들에게 현혹되지 말아라. 그동안 예언자들과 성인들을 통해 진리는 너희에게 전해졌다. 성자의 거룩한 로마 가톨릭교회는 다시 바로 세워질 것이다. 그 구성원들은 소수만이 남을 것이다. 남은 자들이 믿음과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 것이다. 지옥의 문이 성교회에 대적해 크나큰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나, 저들은 결코 성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 1977.5.14 -

## 성교회의 변질 / 이탈

### ◆ 비오10세의 : 미사가 효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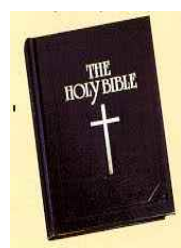
성모님 : "성자의 교회를 인간에 의해 판단하지 말아라. 설령 그가 성자의 집의 대리자, 합리적인 대리자라 해도 그는 그의 본성에서는 인간일 뿐이다. 그러나 성자께서 너희에게 성변화에서 오실 때, 그의 인간 본성의 상태에 관계없이, 죄인이건 성인 이건 그는 성신을 통해서 사용될 것이며, 성자께서는 너희에게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미사가 효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성심에 큰 슬픔을 가져 왔는데 많은 자들이 이 문제로 우리를 떠났기 때문이다." - 1981.8.14 -

### ◆ 사탄에 의해 조장된 변화를 받아들이지 말라



예수님 :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전통을 고수하여야 한다. 너희들은 전통적인 진리를 바탕으로 공포된 모든 규율을 지킴으로 해서 너희들의 신앙의 견고한 기반을 고수해야 한다. 너희들의 영혼을 그릇되게 유인하기 위하여 사탄에 의해 조장된 변화를 받아들이지 말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 세상의 강실 안에 있는 나에게로 오라. 생명의 빵을 영할 수 있도록 주어진 모든 기회를 받아들여라. 너희가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진리와 성교회를 통하여 전해져 온 나와 사도들의 교훈만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 1977.11.19 -

### ◆ 고쳐진 성서 이는 사탄이 준 것이다



성모님 :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진리로부터 너무도 멀어졌구나! 너희를 진리로 끌기 위해 옛 예언자들을 통해 많은 지혜가 전해졌건만, 너희는 이 말씀들을 인간들의 사악하고 나쁜 본성에 맞추어 모두 고쳐버렸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예언자들의 진리의 말씀을 되돌려 놓고 읽도록 하여라. 고쳐진 성서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이는 사탄이 준 것이다. 이단들아, 오, 저주받을 이단들아! 도대체 너희가 어찌되려 이리느냐?" - 1976.6.5 -

### ◆ 손 영성체 : 신성모독, 너희가 잘못 인도되고 있다.



성모님 : "나의 자녀들아, 생명의 빵인 성체를 손으로 받지 말아라. 너희가 잘못 인도되고 있다. 성자의 성체를 손으로 받아서는 안된다. 루치펠이 빛의 천사처럼 다가와 자신의 무리들을 성직자들 사이에 들여보내 저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온갖 가증스런 행위가 지금 성자의 성체에 저질러지고 있다." "우리의 양이 천국을 잃는다면, 양의 타락에 대한 큰 책임을 '성직자들이 지게 될 것이다. 붉은 모자들이 타락하였고, 자주모자들이 잘못된 길에 서 있구나." - 1978.7.15 -

### ◆ 성자께서는 자신의 성체와 성혈이 지상의 인간들에게 분배되는 현재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손으로 하는 영성체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하늘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이것은 영원하신 성부의 눈으로 보실 때 신성모독이므로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영원하신 성부를 거슬리는 이와 같은 방식을 계속한다는 것은 너희의 징벌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 1984.6.30 -



성모님 : "성자께서는 자신의 성체와 성혈이 지상의 인간들에게 분배되는 현재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손으로 하는 영성체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하늘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이것은 영원하신 성부의 눈으로 보실 때 신성모독이므로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영원하신 성부를 거슬리는 이와 같은 방식을 계속한다는 것은 너희의 징벌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 1984.6.30 -

### ◆ 성직자만이 거룩한 성체를 나누워 줄 수 있다



성모님 : "잘못된 믿음에 의해 타락하여서는 안된다. 합당하게 임명되고, 성스러운 손길로 서품 받은 성직자들만이 지상의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성체를 나누어 줄 수 있다. 인간이 성체를 전하고 받는 행위가 우리에게 큰 슬픔을 안겨 주고 있구나. 성교회 내에서 신성해야 할 영성체의 시간이 사악하게 변하고 있다. 성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아, 성자의 몸을 통해 성신께서 두가지 큰 힘을 자녀에게 전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성체를 통하여 육신과 영혼에 분명하고 뚜렷이 성신께서 들어가신다!" "성자께서는 지상에 대리인들을 세우셨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릇된 생각과 사악한 행위, 반쪽짜린 믿음,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서 보고 있는 근대주의와 인본주의의 잘못된 흐름에 빠져 버린 자신을 성부께 회개하고 믿음의 조연을 구해야 한다." - 1973. 3.18 -



◆ **여자가 제단에 서서는 안된다**



예수님 : "나는 너희들의 주님으로서 부탁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거룩한 희생의 제사, 때에 여자가 제단에 서서는 안된다. 또 고위 성직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것은 사탄의 교회에서 있는 일이다. 따라서 나의 교회에서는 안된다. 내가 사도들과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할 때, 나의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다. 내가 만일 성부께서 주신 권으로 여사제를 세웠다면, 분명히 나의 어머니를 뽑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첫 봉헌 때에 여자는 없었다." - 1987.10.2 -

◆ **미사보 : "여성예방" 사탄에 연옥되지 말아라**



성모님 : "오늘 하늘의 가장 높은 천사들의 대축일에 대천사들이 요청한다. 미사 중 성찬식 때 모든 여인들은 자신의 머리를 가려야 한다. 이를 요청하는 것은 관습때문만은 아니다. 나의 자녀들아, 사탄에 현혹되지 말아라. 여인들은 성자의 성찬식 때 공경의 표시와 인간의 법칙이 아닌 성부의 모든 계명에 대한 공경의 표시로서 자신의 머리를 가려야 한다. 지금 인간들이 자신의 파멸을 초래하는 인간의 법칙과 인간의 계명을 만들고 있다." - 1976.9.28 -

◆ **성령 세미나 : 교활한 악마가 들여다 놓은 것**



성모님 : "너희가 '성령 세미나'라고 부르는 것은 주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노력하려 시작되었지만, 나의 딸아, 나는 이를 노력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분쟁만 가져다 줄 뿐이다. 이것은 성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을 버리고 악마의 방식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나의 자녀들아, 그들이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런 변화를 통하여 그들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지만, 너희는 이런 변화가 필요 없다. 성자께서는 항상 성체 안에 계시지 않는다. 이들에게 현혹되거나 당황하지 말아라. 하늘에 대한 기도는 단순하다. 자극적인 것을 찾지 말아라. 하늘에 바치는 기도는 항상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면 된다. 블라블라블라블라 라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듣기에 저들의 기도는 이렇게 들리는구나. 말을 크게 뒤틀고 있다. 저들이 생명의 책을 읽을 때 들리는 소리가 어떤지 아느냐?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의 자녀들아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너희는 올바른 장소에서 빛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빛을 구하려면 기도하여라. 항상 기도하여라." "주의 사도들은 성신께 그 지혜를 간구하였지만, 지금 그들은 악마로부터 그 능력을 받고 있다." - 1977.5.28 -

◆ **거짓 성모 발원 : 영은을 시험하고 있다.**



성모님 : 나의 자녀들아, 사탄이 우리와 맞서는 큰 전쟁을 시작하였다. 사탄은 앞으로 많은 거짓 기적들을 줄 것이다. 현혹되지 말아라. 사탄은 그의 시간이 얼마남지 않기에 많은 죄악을 퍼트리려 하고 있다. 너희가 많은 기적들을 유심히 조사한다면, 사탄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알게될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피 흘리는 성상들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 - 1975.10.2 -

**성직자 / 자녀들에게**

◆ **성교회를 예전의 거룩함으로 되돌려 놓아라**



성모님 : "너희가 성교회를 영혼의 구원을 위한 진실한 목적이 있었던 예전의 거룩함으로 되돌려 놓지 않는다면, 너희가 성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와 전례를 되찾아 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합당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징벌의 공을 받게 될 것이다." - 1976.11.20 -

◆ **성교회의 가장 큰 잘못 : 사탄의 연옥에 넘어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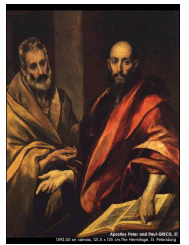
성모님 : "지상의 성교회의 성직자들에게 알려라. 우리는 그들이 순결과 거룩함의 깨끗한 본보기로서 세상의 빛이 되어 서기를 원한다. 그들 또한 도살장에 끌려 가는 양들처럼 선배들에게 잘못 인도되고 있다." "성자의 대리인으로 지상에 세워진 우리 성직자들은 지상의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들은 주님의 특별한 선물인 서품을 받음으로서 지상의 다른 이들과는 같지 않다. 나의 딸아, 깊은 암흑이 많은 영혼을 덮고 있기에 우리가 몹시 슬프구나." "성교회의 가장 큰 잘못은 성직자의 타락을 부추겨 많은 영혼을 모으려는 사탄의 현혹에 넘어간 것이다. 안된다! 성직자들의 모범은 순수하여야 하며, 세속의 본능과 구별되어야 한다." - 1974.6.18 -

◆ **목자들, 너의 가르침이 깨끗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 : "세상이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구나. 나의 집이 많은 자들의 죄악의 소굴이 되어 가고 있다. 슬프게도, 나를 대신할 은총을 받은 자들이 영혼을 빼앗아 가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구나." "내가 성교회의 목자들에게 언제나 하는 말이 있다. 너희는 이 말을 흘려 보내지 말고 항상 명심하고 생각하여라. 오 목자들아, 너희가 내 앞에 서서 내가 보기에 너희의 가르침이 깨끗했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 1976.11.22 -

◆ **인간에게 맞추기 위해 길을 변경시켜서는 안된다**



예수님 : 나는 이것을 나의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인간에게 맞추기 위해 길을 변경시켜서는 안된다. 나의 길로 인간을 데려가기 위해 인간을 변경시켜야 한다!!! 그 길은 생명과 사랑의 책, 너희들의 성경에서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너희들은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 글과 의미를 바꾸어서는 안된다! 천국으로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며 극소수만이 이 길에 머무른다. 나의 많은 사제들이 멸망의 길 위에 있으며 많은 영혼들을 그들이 함께 데려가고 있다." - 1979.6.2 -

성모님 : "사탄이 많은 자신의 우리들을 성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의 몸속에 드러 보냈음을 세상에 알려라. 그들이 온갖 속임수로 기만하고 있다. 그들은 사탄이 생각한 만큼의 영혼을 모을 때까지 죄악을 정당화시켜 인간들을 기만할 것이다! 저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전능하신 성부께 자비를 구하며 울며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도 늦다! 저들을 구하기에 너무도 늦다! 많은 주교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 1975.10.6 -

◆ **우리는 영원한 회개를 원한다**



성모님 : "우리가 너희에게 낱자를 알려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단지 두려운 마음으로 오려 할 것이다. 우리는 서서히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우리는 영원한 회개를 원한다." "나의 딸아, 하늘의 메시지를 누가 받아 들일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앞으로 나아가거라. 모든 것은 하늘의 성부의 뜻대로 될 것이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어떤 자는 받아들이고, 어떤 자는 거부할 것이다. 너희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들 또한 너희의 기도를 통해 빛과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시급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너희는 발목 아래까지 오는 옷을 입도록 하여라." "너희가 세상의 길과 다를 때 너희는 옳은 길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과 합쳐진다면, 너희는 잘못된 길에 있는 것이다. 세상은 성자를 거부했듯이 너희를 거부할 것이다." - 1975.3.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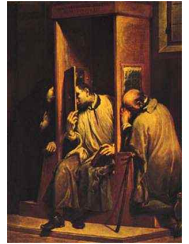
**7성사 / 십계명**

◆ **아들이 내려준 7성사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성모님 : "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성사를 지켜야 한다. 영세 성사, 견진 성사, 성체 성사, 고백 성사, 종부 성사, 신품 성사, 혼배 성사 이 성사들을 너희는 거부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주님께 서 주신 원래의 계명을 거부하는구나. 너희가 이교도의 사람을 더 좋아하는구나!" "이들은 너희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다. 이들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성교회를 다스리는 목자들아, 너희가 교만심으로 초자연을 부정하는구나. 너희가 사탄의 가르침 때문에 성교회를 세운 이들의 가르침을 부정하는구나!" - 1976.11.1 -

◆ **고해성사도 보지 않고 성자를 모시는 죄악**



성모님 : "완전한 정화가 성교회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여인들아, 너희가 이교도처럼 난잡한 차림을 하고 성자를 모셔서는 안된다! 너희가 가리지도 않고 벌거벗고 성자를 모시려 하는구나! 고해성사도 보지 않고 성자를 모시는 자들이 너무도 많구나! 이 또한 가증스런 죄악이다!" "나의 딸아, 인류는 고해성사를 행하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여야 한다." - 1974.12.31 -

◆ **십계명을 아나라도 거스리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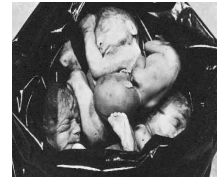


예수님 : "너희는 너희 주님이 주신 십계명을 따라야 한다. 이 계명들은 더해지지도 수정되지도, 삭제되지도 않을 것이다. 십계명을 따라야 한다. 나의 자녀들아, 지금 너희가 많은 계명을 깨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진노하신 아버지의 징벌을 청하는 것임을 모르겠느냐?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라! 너희는 거짓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너희는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너희는 네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세상의 죄악이 광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너희는 세상이 뱀의 소굴이 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 1978.11.25 -

**낙태/동성애/시험관아기/인락사**

◆ **낙태영위 : 지옥 불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베로니카 : 비닐 포장지가 보인다. 오! 오! 세상에! 아기의 몸이 보인다! 쓰레기 봉투 안에 아기의 몸이 보인다! 한 봉투 안에서는 세 개의 머리가 보인다. 그들은 진짜 아기들이다. 오! 너무도 끔찍하다! 어느 봉투에도 완전한 모습으로 아기의 몸이 붙어 있지 않다. 팔과 다리들이 모두 떨어져 나가 있다. 오! 주님! 성모님 : "그렇다. 나의 딸아, 그들은 도살당했다. 그들은 억지로 비틀리고 잘려 죽었다!" "나의 딸아, 살인자들이다! 너희가 뿌린 씨앗은 너희가 거두어들일 것이다! 이 태어나지도 않은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일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 불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영원한 파멸과 불꽃이 그들을 기다릴 것이다! 지금 너희의 살인 행위를 회개하여라!" - 1974.12.28 -

◆ **동성애는 항상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모님 : "나의 자녀들아,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계는 사탄에게서 주어진 것들이다. 동성애는 언제나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인간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 도덕에 대한 위반이다. 상위일체이신 전능하신 성부께서는 이를 절대로 용서치 않으실 것이다." - 1985.10.5 -

예수님 : "에이즈(AIDS)는 동성애, 산아제한, 낙태 그리고 모든 변태행위로 인한 하늘의 심판의 하나이다" - 1987.6.6 -

◆ **영은 없는 시험관아기 : 도끼이 용서할 수 없구나**



성모님 : "나의 자녀들아, 우리는 지상의 씨밭이들 때문에 크게 슬퍼하고 있다. 이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에게로 아이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구나." "혼인성사는 사랑과 신성함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위하여 주어진다. 자기 자신을 신처럼 행세하며, 순결한 아이들을 주기적으로 창조한다고 해서 모두 신성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들의 죄를 속죄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관에 거룩한 생명을 준 일이 없다는 것을 너희는 깨달아야 한다." - 1987.6.6 -

◆ **안락사 : 의학 수단에 의해 생명을 유지할 때라도**



성모님 : "어떤 인간도 살인해서는 안된다. 나의 자녀들아, 어떤 이가 병약하여 삶을 포기하거나 세상에 남아있기를 거부하며 죽음을 원할 때라도, 그가 기도나 온갖 의학 수단에 의해 생명을 유지할 때라도 그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전능하신 성부께서는 그 순간에도 그 영혼을 몸속에 놓아 두신다. 육신은 영혼의 거룩한 성전이다! 영혼이 전능하신 성부께 되돌아오는 때를 아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어떤 인간도 살인에 의해 영혼을 육신으로부터 빠져나오기를 재촉하여서는 안된다. 안락사는 살인이다! 너희가 삶과 죽음을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 - 1976.6.5 -



"Our Lady of the Roses, Mary Help of Mothers"  
(로사리오의 성모, 도움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www.jacinta1972.org](http://www.jacinta1972.org)

※ 자세한 성모발현 메시지는 인터넷을 보세요.  
검색어 : "뉴욕 베이사이드 성모마리아 발현 메시지"